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 약사회와 협약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오)와 전라북도약사회(회장 서용훈)는 11일 전라북도약사회 회의실에서 도농상생 및 전라북도약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장기오 본부장과 서용훈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회 회원에게 필요한 금융지원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도농상생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와 동시에 병·의원, 약국, 노인요양시설 사업자대상으로 최대 1.7%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화 대출상품 NH메디칼론을 출시했다.

또한 NH메디칼론, 슈퍼프로톤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약사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잔치

한국노인복지봉사회전주지회·부지회, 점심식사와 선물 꾸러미 전달



안환자 장애우 홀몸돕기 행사가 11일 전주역 부근 안산별 연탄집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 하고 리본, 열나는 허리보조대, 최고급 6년근 홍삼, 프로폴리스 치약 칫솔 세트, 글로코사민 파스, 사탕 등을 기부했다.

2020년 광복절을 맞아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지회(지회장 정인스님)와 부지회인 임현(완산별) 대표가 공동 개최했다.

임현 대표는 점심식사 제공 비용과 지원품을 일체 기



부했다.

전주시지회장(정인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초대해 합세시길 바라는 마음에 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임현대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현 대표는 "코로나 영향으로 매년 해오던 행사를 하지 못하나 걱정도 했지만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고 용기를 내서 더욱 건강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캡스톤디자인 언택트 경진대회 성료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LINC+사업단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최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캡스톤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 캡스톤디자인 언택트 경진대회는 총 8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각 전공 분야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고, 작품 시연 영상이 포함된 결과보고 UCC를 출품해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계열별 전공교수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선제어 FPV'를 주제로 참여한 전자융합공학과 WS팀(신희남, 송원일, 홍지오, 정은영)이 공학계열 대상을 차지하고, 어린이용 한약만 '육미추'를 개발한 한약학과 육미추팀(마수정, 김연애, 송재영, 오승진, 유경인)이 비이공계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컴퓨터디자인학부 1조 팀은 '확성 후 피부 진정을 위한 콜링젤'을 개발해 창업 가능성을 보였으며, '익산의 인물 및 캐릭터를 활용한 교통카드와 엽서'를 제작한 역사문화학부 위호부익산팀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진대회를 주관한 LINC+사업단장 송문규 교수는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능력 향상 및 지역 연계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실무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인권 119' 긴급지원사업 위한 업무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박정배)은 11일 국민연금 잡실사육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고선순)와 '장애인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119' 업무 협약은 부모의 부재·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학대 받는 미등록 장애인을 도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부모회가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의뢰하고 공단은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공단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에게 동행서비스 제공 등 병원 검사, 진단서류 발급을 돕고 관련 심사 비용도 부담한다. 장애등록 심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이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장애인 등록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연계, 장애인 가족 및



동료 상담서비스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와 협조체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소외·학대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문 인력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 지정 전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주민철)가 최근 전북권 14개 시·군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CBR 담당자 및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뇌졸중의 이해와 관리(원광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영훈 교수)', '장애 인식 개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정래 강사)', '사례 관리의 이해 및 활용(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신애 교수)', '장애인 대상 상담 심리 과정의 이해(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호준 교수)' 라는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호응을 이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농협, 침수피해 농가 찾아 재해 복구활동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11일 지난 주말 삼진강댐 방류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수해피해 농가를 찾아 재해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지난주 삼진강댐 방류와 500mm가 넘는 폭우로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금곡교 인근 제방이 붕괴됐고, 금지면 7개 마을 주민 300여명이 인근 대피시설인 금누리센터로 긴급하게 대피했다. 이에 전북농협은 수해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복구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수해 이재민 긴급 구호에 지원 총력

남원시가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이재민을 위해 긴급 재해구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호우로 가장 피해가 심한 금지면을 비롯 12개 지역에 1,000여명의 이재민이 학교,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에 대피했으나, 현재는 8개 지역시설에 300여명이 머물고 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응급구호세트 963개, 담요 215개, 텐트 325개, 생수, 빵과 음료 등을 긴급 공급하여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64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